

# 잠자던 KIA 타선 대폭발



장단 14안타 ... SK 11-2 대파

윤석민 6이닝 1실점 ... 마침내 3승

KIA 윤석민이 4번의 도전 끝에 3승을 채웠다. KIA 타이거즈가 3일 문학구장에서 열린 SK 와이번스와의 경기에서 선발전원안타행진으로 11-2 대승을 거뒀다.

선발로 나선 윤석민은 6이닝 4피안타 2볼넷 4탈삼진 1실점(비자책)의 호투로 팀의 연패를 끊고 시즌 3승째를 기록했다.

폭투로 1점을 내주기는 했지만 3루수 이범호의 송구실책에서 비롯된 비자책점이다.

3회말 윤석민이 선두타자 조인성에게 중전 안타를 허용했지만 유격수 김선빈이 임준의 안타성 타구를 잡아 주자를 잡아냈다. 최운석의 안타가 이어지면서 1사 1·2루, 이번에는 정근우의 강습타구를 이범호가 한번에 잡아내면서 투 아웃을 만들었다. 하지만 이범호가 스타트를 끊은 2루 주자를 잡기 위해 던진 공이 2루수 뒤로 빠지면서 2사 1·3루가 됐다.

윤석민은 폭투로 1점을 헌납했지만 박재상을 헛스윙 삼진으로 돌려세우고 이닝을 마무리 했다.

이를 연속 SK에 0-1 영봉패를 당했던 KIA 방망이가 25이닝 침묵 끝에 재가동에 들어갔다.

0-1로 뒤진 4회초, 4번 타자 이범호의 볼넷이 시작점이 됐다. 안치홍이 물에 맞는 볼로 출루한 뒤 나지완의 우전안타가 이어지면서 무사 만루. 김주형의 외야 플라이가 멀리 빨치지 못하면서 3루 주자가 홈을 밟지 못했지만 송산의 밀어내기 볼넷이 나오면서 1-1이 됐다. KIA는 이준호와 이용규의 연속 안타로 3-1로 승부를 뒤집었다.

1사 만루에서 SK가 선발 윤희상을 내리고 박정배를 투입했지만 KIA 김선빈이 썩쓸이 2루타를 터트리며 6-1로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KIA는 김원섭의 2루타로 시작된 7회에도

5개의 안타로 5점을 뽑아내며 SK 마운드를 두들겼다. 7회 송산의 2타점 적시타와 함께 KIA 선발 전원 안타도 완성됐다.

9번 타자 김우익으로 선발 출전한 이준호가 윤석민 3승의 주역이 됐다. 자신의 한 경기 최다인 4개 안타를 몰아친 이준호는 2타점과 함께 깔끔한 수비까지 더해 윤석민의 어깨를 가볍게 해줬다.

윤석민에 이어 등판한 겹없는 신인 듀오 박지훈-홍성민은 20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아내며 팀의 11-2 대승에 힘을 보탰다.

한편 투수 서재은은 이날 어깨 근육 통증으로 앤트리에서 제외됐다. 서재은은 1일 SK와의 경기에 선발 등판, 6이닝 3피안타 4탈삼진 1실점의 호투를 했지만 팀이 0-1로 지면서 패전투수가 됐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KIA 타이거즈기 호남초등 야구**

**오늘 본양리틀구장서 개막**

제9회 KIA 타이거즈기 호남지역 초등학교 야구대회가 4일 광주시 광산구 본양리를 구장에서 개막한다.

이번 대회는 KIA 타이거즈가 광주·전남·북 지역의 야구 꿈나루 발굴과 육성을 위해 마련했으며 광주시야구협회 주관으로 오는 8일까지 5일간 계속된다.

지난해보다 2개팀 더 많은 17개 초등학교가 참가해 토너먼트 방식으로 승부를 가리게 되며 우승팀과 2·3위 팀에게는 트로피와 상장, 메달이 수여된다. 최우수선수상 등 10개 부문의 개인상 수상자에게는 글러브와 야구화 등의 상품도 증정된다.

1사 만루에서 SK가 선발 윤희상을 내리고 박정배를 투입했지만 KIA 김선빈이 썩쓸이 2루타를 터트리며 6-1로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KIA는 김원섭의 2루타로 시작된 7회에도



KIA 이준호가 3일 문학구장에서 열린 SK와의 경기에서 7회 1타점 2루타를 치고 나간 뒤

김평호 주루코치의 환영을 받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생활체육대회 힘찬 출발

지난 2일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12 생활체육 100m 스프린트 대회에서 참가자들이 힘차게 출발하고 있다. 국민생활체육회가 주최하고 국민생활체육광주시연합회가 주관한 대회는 순수 아마추어 육상 동호인들의 트랙 경기 참가를 위해 마련됐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3일 목포 국제스포츠클라이밍센터에서 열린 '제3회 고미영컵 전국청소년스포츠클라이밍대회' 남자 고등부에 출전한 조승운(18·광주전자공고2)군이 암벽 상단부를 오르고 있다. 조군은 남자 고등부 난이도와 속도경기에서 모두 1위를 차지했다.

<광주시산악연맹 제공>

## 고미영컵 전국청소년스포츠클라이밍대회

## 광주 고등부 상위권 힘쓸어

### 조승운 김홍일 김한울 군

대한산악연맹이 주최하고 전남도산악연맹(회장 이상현)이 주관한 이번 대회에 광주시산악연맹은 황평주(41·황평중반교실) 감독의 지휘 아래 16명의 선수를 출전시켜 남자 고등부 경기를 사실상 석권했다.

'2012 청소년국가대표 선발전'을 겸해 열린 이번 대회의 상위 입상자는 각종 국제대회에 청소년 국가대표로 출전하게 된다.

광주시산악연맹에 따르면 3일 치러진 남자 고등부 난이도경기 결승에서 조승운(18·광주전자공고2)군과 김홍일(19·수완고3), 김한울(18·빛고을고2)군이 각각 1, 2, 3위에 올랐다.

또 남자 고등부 속도경기 결승에서도 조군이 1위, 김홍일군이 2위, 김한울군이 4위를 각각 차지했다.

특히 조군은 남자 고등부 난이도와 속도경기에서 모두 1위를 차지하는 기염을 토했다.

이번 대회는 대한체육회와 국민체육진흥공단, 목포시가 후원했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 광주일보 창사60주년 기념 엄홍길 대장과 함께하는 밀레「국립공원 16좌 고객원정대」모집



▶참가신청 : 광주/전라지역 밀레 매장에서 접수 (자세한 사항은 밀레 매장 혹은 www.millet.co.kr)

▶참기특전 : 참여하신 모든분께 밀레 기념품 증정

**두번째 신행** 6월 21~22일(무박2일) / 주왕산

※일정 및 신행루트는 기상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주)밀레 마케팅본부 (02-3153-3143, 4)

| 주 최 | MILLET MOUNTAIN BY EXPERIENCE

| 후 원 | 광주일보사

MILLET

호남제일 음식문화를 자랑하는 아리랑하우스 여 / 품 / 메 / 뉴

삼계탕

전복삼계탕

굴비정식

건강한 우리 음식으로  
즐거운 만남을 준비하겠습니다!!

금수장호텔·아리랑하우스

예약문의 (062) 525-2111 (계림동 훌플러스 건너편)

● 착한 가격의 편안한 객실 ● 각종 모임을 위한 연회장, 접객실

Since 1981 1등 맛집 연속 선정  
30년을 고객과 함께 지켜온 광주의 대표 맛집

광주 1등 맛집

광주광역시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 연회장 | 광주 와인 문화1번지 모리나리 | 맞춤형 출장도시락 | www.geumsuojang.com